2022 ARTBUS CANbus X 예술공작소

HOBAN
호반문화재단

CAN Contemporary Art Network

목차

소개
캔 파운데이션 소개
호반문화재단 소개

인사의 말
인사의 말-캔 파운데이션
아트버스 프로젝트 <캔버스 CANbus> 예술창작체험 프로그램의 의미와 과제 - 김성희
2022년, 아트버스 캔버스로 들여다본 작가의 세상 - 박성빈

프로그램 소개
모두의 식물 이야기 - 김이박
표지판-위-낙서/낙서-위-표지판 - 양진우
이 저 그 색(이색-저색-그색) - 최선
픽셀의 세상 - 김현우

결과보고전시

참여자
참여작가
참여단체
참여후기

INDEX

캔 파운데이션 소개

비영리 사단법인

캔 파운데이션

캔 파운데이션은 민간 차원의 예술 지원을 목적의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7월 노동부로부터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에 맞는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인 예술 창작지원 사업으로 전시공간 <스페이스 캔>과 <오래된 집>, 예술가 창작활동을 위한 국내 레지던시인 <명륜동 작업실>과 해외 레지던시, <P.S.B.-ZK/U>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예술창작체험 활동으로 아트버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가 발굴 및 창작 지원, 해외 교류 전시, 해외 네트워트 구축으로 문화교류, 문화 확산 프로그램 기획 통한 국내 미술계 창작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캔의 예술가들과 문화나눔지역 아동 청소년들과 창의체험 프로그램인 아트버스캔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시

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서울시 성북동에 위치한 복합문화 및 전시공간인 스페이스 캔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전시 및 행사 지원을 통한 예술 영역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8년 12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P.S.B. (Project Space in Beijing) 1기 예술가들의 전시를 시작으로 국내 활동 작가들과 해외 작가들의 개인전과 퍼포먼스, 음악공연, 미디어 전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연간 프로젝트인 캔캔프로젝트 (Can! CAN Project)와 해외작가와 국내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동시대의 예술을 조망해 보는 C.C.C.프로젝트 (Can Cross Culture Project)를 기획한 바 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전시뿐만 아니라 연계프로젝트로 <아티스트 투 아티스트(A2A)>, <크리틱 투 아티스트(C2A)> 프로젝트 등, 워크숍,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각예술에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캔 파운데이션의 오래된 집은 성북동의 오래된 가옥 두 채를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이었던 장소의 특징에 기인하여 작가가 공간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장소 특징적' 프로젝트를 지향합니다.

사회공헌활동

아트버스캔버스 프로젝트

아트버스 캔버스 프로젝트 (ARTBUS CANbus Project)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문화 나눔 희망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창의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캔 파운데이션 출신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창작 과정을 체험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지역 아동. 청소년들과 일정기간 예술창작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자아발견, 타인이해, 공감능력, 소통능력 등의 확장의 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명륜동 작업실

캔 파운데이션에서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베이징 P. S. in Beijing>, <프로젝트 스페이스 베를린 P. S. in Berlin>에 이어 국내외에서도 새로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확보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결과 2015년 명륜동 작업실을 개관했습니다. 서울 중심 종로의 유서 깊은 동네인 명륜1가에 위치한 명륜동 작업실은 3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3인의 예술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예술가들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전속작가제를 도입하여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지원을 넘어서 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호반문화재단

호반문화재단은 미술품의 수집, 보존, 전시 등을 통한 미술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지원, 인재양성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호반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신념으로 미술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 예술 공간인 '아트스페이스 호화'를 통해 국내외 유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대중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프로그램 'H ART LAB', 국내 청년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술공모전 'H-EAA (Hoban-Emerging Artist Awards)', 국내 중견·원로작가 발굴 및 지원 사업 '호반미술상' 운영을 통해 미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전시지원·문화 콘텐츠 지원 등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모두를 위한 예술'을 지향하며 문화예술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복합문화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예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의 말

예술을 통해 사회와의 소통과 희망을 실현하는 아트버스 캔버스(ARTBUS CANbus) 프로젝트가 출범한 지 벌써 1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트버스는 서울 경기 외 전국 약 245개의 문화나눔 희망지역을 운행하면서 약 11,981명의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미술 창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캔의 젊은 예술가 146명이 참여했으며, 아동. 청소년에게 잠재되어 있는 예술적 재능과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아트버스캔버스(ARTBUS CANbus)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예술가들과 함께 창작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성 체험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나누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버스 캔버스는 지난 14년 여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간의 아트버스 캔버스의 활동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여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임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참여작가님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으로 이끌어간 교육팀과 스태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트버스 프로젝트가 유익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후원자님과 후원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캔 파운데이션
이사장 장문경
이사 김영주, 김성희

아트버스 캔버스 예술창작체험 프로그램의 의미

김성희 (캔 파운데이션 이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회자되는 키워드는 문화, 환경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문화 및 문화생활의 확장을 꼽을 수 있다. 예술의 창의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면서 문화예술교육 역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창작 활동은 인간 감성을 키워주고 상상력과 표현력, 창의성을 향상하며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 줌으로써 인간 인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다양한 체험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술창작 활동이 질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체계적 진행과 동시에 흥미를 유발하고 인지적, 정서적으로 창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교육의 주체의 성격이 더욱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정부나 단체 주최로 행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각 대상기관이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반영되지도 못한 일방적 주입식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어 왔다. 수많은 문화 거점 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수적으로 다양한 강좌들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획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 복지를 지향하며 개설·운영된 프로그램들이 대상 수혜자들의 삶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나아가 그들이 적극적인 예술 향유층으로 성장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술가를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서 젊은 작가들이 아트버스를 그들의 작업 연장선상으로 설정하고 아동과 청소년들과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각적으로 예술적 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캔 파운데이션의 아트버스 캔버스(CANbus)는 2009년부터 문화 취약 대상 지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 내부 공간을 작가와 아동. 청소년들의 공동 작업실이자 상상공장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버스 안은 거대한 캔버스가 되었다. 말하자면 창작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Creative Tank' 역할을 담당했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발견해 내는 능력을 말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안, 새로운 방법이나 고안, 새로운 예술적 대상이나 형태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의적인 작업 세계를 가진 작가들의 창작 에너지를 바탕으로 아트버스 프로그램은 참여자 모두를 일방적인 예술교육이 아닌 예술체험으로서의 소통의 현장, 그 자체로 끌어들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체험교육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능과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예술가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동참함으로써 소통방식과 공감형성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는 캔 파운데이션의 설립 취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위주로 아트버스 캔버스(CANbus)는 2009년부터 서울 및 전국(도서산간지역 포함) 약 245지역의 약 11,981명 아동. 청소년들과 146명의 작가들과 호흡을 맞추어 왔다. 8-10주를 운영하는 정규프로그램과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문화오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작가들과 아동. 청소년들은 창작 과정뿐 아니라 작업의 완성에 따른 창작의 희열을 나눌 수 있는 공동 체험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또한 작가들 자신에게도 정신적인 울림뿐 아니라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 등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아트버스 안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관계는 단지 예술창작체험이라는 과정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

치유라는 부분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후원했던 '특수 상황지역을 찾아가는 재능나눔버스 프로그램'은 2012-13년도에는 한반도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인 연평도와 국립 소록도 병원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아트버스 캔버스(CANbus)는 작가들이 발굴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의 재능을 계속 계발하기 위해서 'Art Camp' 및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2016년 이후에 아트버스 캔버스(CANbus)는 기동성을 초점으로 두고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아트버스에서 미니버스로 변경하였으며 예술가와 함께 도서산간 지역을 직접 찾아감으로 프로그램 역시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에 집중되었던 수업이 도서산간지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아트버스 캔버스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의 시각을 통한 체험을 공유하게 되며 이러한 체험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확장은 외부와의 소통의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술가가 창조하는 예술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감성과 감각의 민감성을 회복하여 일상의 예술화, 예술의 일상화에 기여하는 하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아발견, 타인 이해, 공감능력, 소통능력 등이 공동체 기반의 문화체험을 통해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과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예술학교로의 진학까지도 이끌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캔 파운데이션은 이러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술전문가들과 이론가들과 함께 연구·지원할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아트버스 캔버스(CANbus)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문화예술 향유 층의 증대와 질적인 향상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동.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향상하며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함으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더욱 신선한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캔 파운데이션의 설립 목적인 예술 창작지원과도 매우 부합하는 문화 나눔의 실천이며 이러한 운동은 나아가서 사회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밑거름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아트버스 캔버스로 들여다본 작가의 세상

(캔 파운데이션 박성빈 에듀케이터)

2009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문화 나눔 지역과 대상을 위해 달리고 있는 <아트버스 캔버스>가 2022년에는 호반문화재단과 함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다운복지관을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한 <아트버스 캔버스 X 예술공작소> 프로그램은 호반문화재단에서 발달장애 작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했던 '예술공작소R'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대미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미술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와 함께하는 수업들에서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참여자들도 작가의 작업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며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김이박 작가의 <모두의 식물 이야기>는 식물을 통해서 예술 창작/체험은 물론 식물과 흙을 직접 만지며 치유와 힐링의 개념으로도 참여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식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식물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보고, 듣고, 이해한 것들을 드로잉과 설치의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양진우 작가의 <표지판-위-낙서/낙서-위-표지판> 수업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야기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판의 이미지처럼 자신들의 이야기와 옆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하나의 설치 작업으로 완성해 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최선 작가의 <이 저 그 색(이색- 저색-그색)>은 색의 기본 요소인 삼원색을 주제로 하여 기본적인 그림과 색에 대해서 이해하고 직접 표현해 보며 색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참여 작가인 김현우 작가의 <픽셀의 세상>은 평소 바라보고 경험한 주변의 모습과 사람들을 픽셀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해 보며, 참여자들이 자신과 서로를 관찰하며 발견한 모습들을 픽셀로 그려보며 일상의 풍경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김현우 작가는 어렸을 적 다운복지관을 이용했던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 작가입니다. 다운복지관을 이용했던 한 사람이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며 현재는 수업을 진행하는 작가로서 복지관에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김현우 작가의 모습을 통해서 다운복지관 참여자들에게 좋은 영향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아트버스 캔버스>에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과 스태프, 다운복지관 관계자분들과 참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모두의 식물 이야기
김이박

표지판-위-낙서/낙서-위-표지판
양진우

이 저 그 색(이색-저색-그색)
최선

픽셀의 세상
김현우

김이박 작가

모두의 식물 이야기

2022.06.10 ~ 07.15

여러 종류의 식물을 이용한 예술 체험형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식물이 가지는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며 자신의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참여자가 직접 식물과 흙을 만지고 관찰하며 공감과 교감 더 나아가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술 작업 활동으로 발전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현대미술의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본다.

2022 ARTBUS
CANbus
X 예술공작소
현대미술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 체험/창작 프로그램
2022. 06 - 12
다운복지관
dp
KDS

양진우 작가

2022.08.12 ~ 09.16

표지판-위-낙서/
낙서-위-표지판

빠르고 명확한 전달이 목적인
픽토그램 위에 사적인 이야기들을
덧씌워 다양한 대화를 실어 나가는
작업계획이다. 픽토그램은 picto(그림)와
telegram(전보) 합성어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기표로서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세한 사이의 이야기들은
걸러지게 된다. 빠른전달이 목적인 합의된
대화법인 셈이다. 낙서라는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로 출발하지만 사회속에서
걸러진 부분에 관한 발언을 던지기도
한다. 위의 두가지 풍경에 나는 모호한
감정을 받는다. 다운증후군 학생들이
시도하는 개별적이고 세세한 감정의
발언들이 거두절미된 사회의 약속된
기표에 더해져 단정지을 수 없는 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천천히
SLOW

천천히
SLOW
NEWBURY
USA
BOSTON

POSCA

EXIT

22 ARTBUS CANbus X 예술공작소
6 - 12 다운복지관

최선 작가

이 저 그 색
(이색-저색-그색)

2022.09.30 ~ 11.11

'색'에 관하여 배워보고 새로운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 시도해 볼 수 있다.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의 감정들을 기존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며 그 경험을
확장하여 자신의 감정을 색에 담아 표현해
본다. 색 혼합의 원리를 익히고 우연적
효과와 퍼포먼스적 요소를 결합하여
예상치 못한 그림을 완성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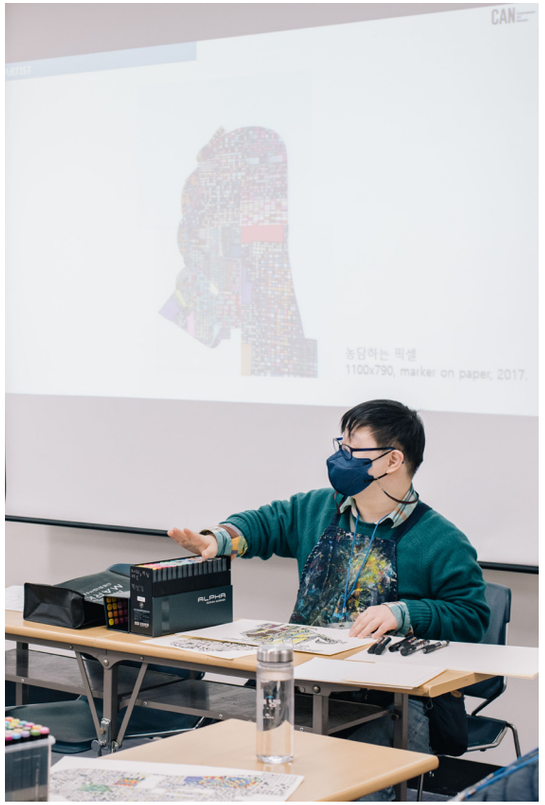
김현우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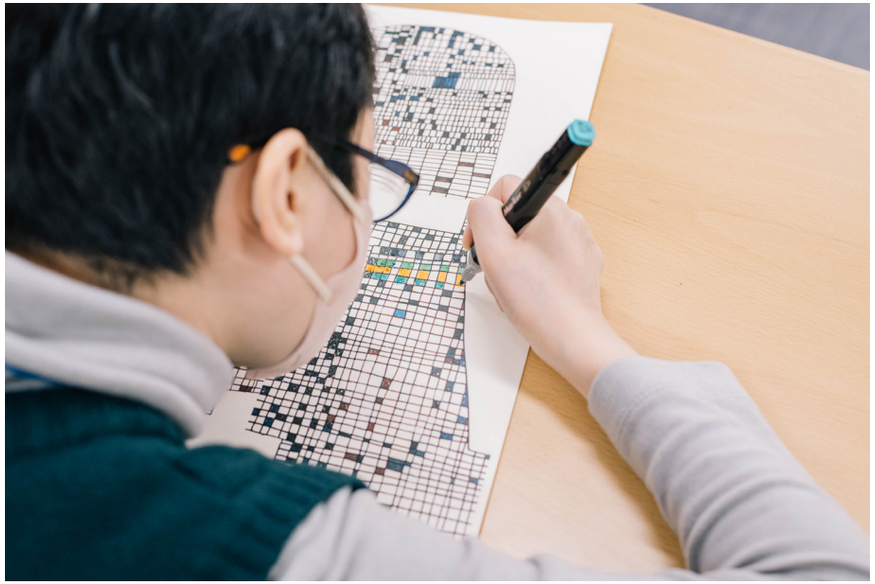
픽셀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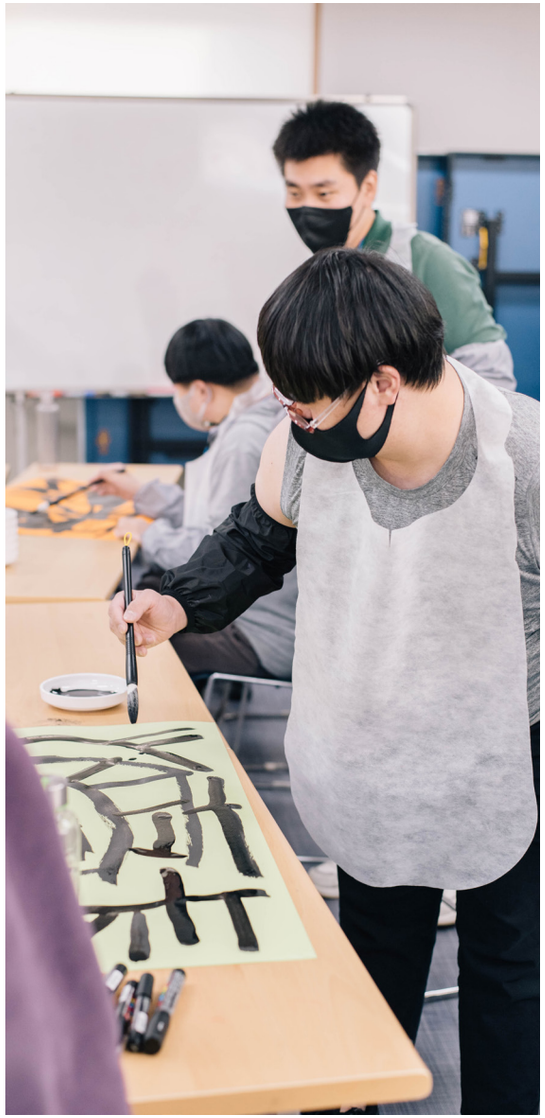
2022.11.18 ~ 12.02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김현우 작가는
평생 그림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가 되었다. 이런
경험과 과정들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공유하고 직접 보여줌으로써 참여자들이
스스로 목표와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Marker
36


농담하는 픽셀
1100x790, marker on paper, 2017.





결과보고전시

작가 약력

김이박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계원디자인예술대학 화훼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2022 <써언덕모티>, 공간 일리, 서울, 한국
2020 <당신의 정원>, 서울 시립 북서울미술관 1층 로비, 서울, 한국
2018 <미모사-sensitive plant>, 위켄드, 서울, 한국
2017 <자라는 모습>, 갤러리 밈, 서울, 한국
2016 <노심초사>, 반쥴 루프탑 갤러리, 서울, 한국
2015 <이사하는 정원>, 롯데갤러리 일산점, 고양, 한국

단체전

2022 <노원달빛산책>, 당현천, 서울, 한국
2022 <설악문화제 특별전 <굿-LUCK>>, 칠성조선소, 속초, 한국
2022 <그냥, 식물. 시즌2-이방인>, 스튜디오126, 제주, 한국
2022 <영원의 시작 : 제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한국
2022 <미술관의 입구 : 생태통로>,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2022 <식물키우기>,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한국

외 다수

양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20 'Undecided…Watching' , 523 쿤스트독 Gallery, 부산, 한국
2019 'Watch & Bewatched' , 갤러리 호스피탈, 서울, 한국
2011 'congratulation.' , 쿤스트독Kunst Doc, 서울, 한국
2010 'Slight Monument Scene', 스페이스 캔, 서울, 한국
2008 'Noble Coda, 덕원갤러리', 서울, 한국
2007 'MIX & FIX and decorate', KTF GALLERY The Orange, 서울, 한국

단체전

2022 '생활 : 조각 A Piece of Life', NOMAD GALLERY, 여수, 한국
2019 '기호의 역습_ Counterattacking Symbols _2인전 Via Lewandowsky & Jinwoo Yang',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16 'Is Any Body Home?', DISKURS, 베를린, 독일
2016 'MADE IN SEOUL', Centre D'art Contemporain de Meymac, 메이막, 프랑
2015 'The Kimchi Session' (Berlin food art week 2015), Neue Heimat,베를린, 독일

외 다수

최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2 <전혁림미술상 수상전>, 전혁림미술관, 통영, 한국
2022 <모국어회화>, 에브리아트, 서울, 한국
2022 <달팽이의 국경>, CEAAC,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022 <소리>, Galerie Dohyanglee, 파리, 프랑스
2021 <독산회화>, 예술의 시간, 서울, 한국
2021 <소금은 말한다: 중단된 여행>, 스페이스XX, 서울, 한국
2021 <부작함초>, 소금박물관, 증도, 한국
2021 <코로나 위장 - 움직이는 중재자>, 스페이스9, 서울, 한국
2021 <소금은 말한다: Showcase>, 스페이스XX, 서울, 한국
2020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 소금박물관, 증도, 한국
2020 <딸꾹질>, Gallery CNK, 대구, 한국
2018 <오수회화>, P21, 서울, 한국
2018 <멍든 침>, Gallery D, 거제, 한국
2017 <멀미>, 씨알콜렉티브, 서울, 한국
2016 <낮밤>, 아트스페이스 휴, 경기, 한국
2016 <무게와 깊이>, 스페이스 xx, 서울, 한국
2015 <메아리>,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5 <자홍색회화>,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13 <두 세상>, 뱀부커튼 스튜디오, 타이베이, 대만
2013 <매와 허공>, 뱅크아트 Studio NYK, 요코하마, 일본
2011 <찰나의 숨>, 케이크 갤러리, 서울, 한국
2011 <실바람>,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뱅크아트 LIFE3 프로젝트, 요코하마, 일본
2010 <가쁜 숨>, 코너 갤러리, 서울, 한국
2004 <벌거벗은 그림 Naked Painting>, MIA 미술관, 서울, 한국

단체전

2022 <Far East Residency 결과보고전>, 대추무 파인아트, 강릉, 한국
2022 <마인드붐 2022 - 불소리에, 불타거나>, 산경물산 A46호, 서울, 한국
2022 <éco(…..)#éco(…..)#éco(…….)>, Galerie Dohyanglee, 파리, 프랑스
2022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2022 <RE-Dynamic>, 갤러리 호호, 서울, 한국

외 다수

김현우

개인전

2022 <Pixel Sharing>, The Pioneer Gallery, 캘거리, 캐나다
2021 <Pixelating>, Various size, 6ch Video, SKT타워, 서울, 대전, 한국
2021 <픽셀의 방법: 믿을 수 없는 공간>, 평화문화진지, 서울, 한국
2021 <픽셀: 무한한 공간> 신한 갤러리, 서울, 한국
2021 <나는 직관적인 노래를 잘 부릅니다> 작품집 발간회 및 개인전, 책冊, 서울, 한국

단체전

2022 <On The Ground>, 아트 잠실, 서울, 한국
2022 <래;콜렉티브: 25개의 방>, 신사하우스, 서울, 한국
2022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서울, 한국
2022 <릴리>, WESS, 서울, 한국
2022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시작이 되어>, 온그루 갤러리, 부산, 한국

외 다수

참여후기

김이박

같은 식물이어도 키우는 사람의 환경,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버텨내고 적응하는 사람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라는 식물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양육되며, 대부분 '화분'이라는 인공적인 거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정착한 식물은 양육자가 이주하면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뿌리가 자라나서 분갈이하면 거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식물의 이러한 상황은 이사로 난민 생활을 겪고 있는 본인과 비슷해 보였으며 자연스레 작업과 교육 활동의 주제나 소재가 되었습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제가 항상 작업과 연관된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참여자들에게 묻는 말 입니다. 물론 식물은 사람의 언어 혹은 동물의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무늬와 색감, 형태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식물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습니다)

이번 2022 아트버스 캔버스의 참여자들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다운복지관의 다운증후군 및 발달장애인분들(성인)이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여나 저의 무지로 참여자들께 피해가 가진 않을지, 제가 계획하고 실행할 프로그램이 참여자분들에게 효과적인 예술 체험이 가능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복지관 관계자 선생님들과 첫 미팅 이후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참여자들 개개인의 자료들도 충분히 숙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생각들은 1주차 첫 만남에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모두의 식물이야기>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셨고 나머지 주차의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걱정을 했던 저의 생각과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5주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배운 부분이 더욱 많았습니다. 식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나 식물을 대하는 태도, 평범한 풍경이라 간과하고 그냥 지나쳤던 모습을 포착해내는 관찰력,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는 동료들을 챙기는 마음 등 참여자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신 부분이 많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양진우

동굴에서 나와 타인과 만나게 되면 가끔 낯선 기분이 든다. 반면 자신만의 생각을 쌓고 작은 세계를 만드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나르시시즘에 질식되기도 한다. 진지한 듯 소소하게 나에게는 영원히 답이 없는 저울질 같다.

그렇지만 때론 그 만남을 통해 나의 동굴 속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안과 밖이라는 구분이 의미 없게 되는 순간이다. 자신만의 세상에 질식 될 일도 없다. 나에게는 다운복지관에서의 만남이 위와 같은 만남이었다.

처음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기분은 들었다. 첫째로 교육이라는 단어와 예술이라는 단어가 가끔 삐거덕 거린다고 여겼던 터였고, 둘째로 과연 내가 다른 경험과 상황의 사람들을 어설픈 이해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이 폭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날의 만남을 통해 그런 걱정과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나의 어색한 태도는 없어지고 다른 작가의 세상을 관람하는 기분에 휩싸였다. 자신만의 조형의 원칙들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감성을 드러내는 참여한 분들의 모습에서 신선하고 개운함을 느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림마다 명칭을 지어주는 모습도 있었고, 자신만의 소재를 꿋꿋하게 고집했으며, 색과 선에 대한 자신의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마치 그 외의 상황과 조건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작업 자체에 빠져 있는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돌이켜보면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다. 만일 쓴다면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웠던 시간 이었다.

다만 설치작업을 체험하기엔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많았다. 고맙게도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과 복지관의 배려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교실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예술 활동들도 포함시켰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만남을 위해 노력한 캔 파운데이션 과 다운복지관에 고마운 마음이다. 이러한 계기들로 단지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만남들의 풍경으로 자리 잡아 나가길 바란다.

최선

도화지 앞에 서면 언제나 긴장되고 떨린다. 오늘의 이 한번의 그림과 단 하나의 선은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묻혀져 있는 '나'를 찾듯이 용기를 내어 손에 힘을 주는 일과 같다.

색은 감정의 질감이다 라는 말을 어느 작가분께 들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그림을 배우던 나의 시간이 떠 올랐다. 향나무 한그루 앞에서 그 향나무를 도화지로 옮기던 일이었다. 내게 그림을 가르쳐 주던 선배는 저기 앞에 보이는 실제 향나무를 이 하얀 도화지 안에 넣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간단하지? 라며 흰 도화지 앞에서 머리 속이 복잡한 후배인 나를 위해 선배는 덧붙여 말했고 이어서 노랑색과 연두색에서 파랑색으로 이어지는 색상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눈 앞의 실제 향나무와는 다른 모습의 향나무가 새롭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없던 향나무가 지금 막 내게 와 준듯한 경험이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회화성'의 핵심을 말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회화는 자연의 향나무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임을 말해준 것이다. 그리고 곧 그것이 대상을 이해한 나의 해석으로써 나의 미술적 아름다움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캔파운데이션 아트버스의 일원으로 다운복지관에서 색에 관한 5주간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간단히 그간의 워크숍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섞어 주황과 초록, 보라의 색을 만들어 보고 섞은 색끼리 다시 섞어 갈색 계통의 여러 색들을 만들어 보았다. 색을 섞어 본 경험은 모두들 많이 해보는 일이라서 따로 배울 일은 못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어야 어떤 색이

나오는 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려 워크숍을 설계했다. 그를 통해서 워크숍에 참가했던 분들이 앞으로는 색에 관하여 우연적인 경험을 넘어 색을 더 깊이 그리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길 바랬다. 색에 관한 워크숍을 마친 후 우리가 사용했던 물감상자 속 물감들이 그냥 마구 뒤섞여 담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정한 순서를 따라 정리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마침 가을철이라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낙엽을 활용해 낙엽 위에 빈 종이를 붙여 그 주변의 색을 재현해 보기도 했다. 색 혼합의 질서와 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이번 워크숍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가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서로 다른 색을 섞어 새로운 색이 되는 과정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워크숍 내용에 구성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여러 사정상 직접 실습해 보지 못하고 눈으로 퍼포먼스를 감상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무엇보다 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구성하려 했다. 가끔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면 '손 없이 눈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왔다. 기술 보다는 몸을 사용하고 논리 보다는 우연 속에서 미술의 방법적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워크숍에서의 만남은 준비해온 것들을 얄팍한 매번 이상적인 착오가 되었다. 때문에 순간 순간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머리 속으로 여러 번 상상해 보며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변수로 가득한 워크숍의 현장은 쉽게 나의 오판으로 결론이 났다. 모든 실수가 미술과 예술을 알고 있다는 나의 지적 오만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워크숍을 도와주신 김예은, 김하림, 박성빈 선생님의 큰 도움과 위안을 받았다. 세 분께 특히 감사드린다.

예정된 워크숍이 모두 끝났을 때 마침 계절은 절정의 가을이 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분들께 거리의 낙엽 한장 한장에서 발견되는 노랑과 연두, 주황과 짙은 갈색 빛깔의 변화가 더 이상 관심 밖의 무엇이 아니길 바란다. 어렵사리 함께 배운 색의 질서와 순환, 혼색이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창작이 된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현우

안녕하세요. 저는 픽셀로 그리는 현대회화 작가 김현우입니다.
저는 참여자들과 인사를 했을 때 너무 기뻤고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박성빈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고 저의 작업실에도 오셔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농담하는 픽셀도 가방이 나와 가지고 나누어주셨고 가방 커플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저의 픽셀을 아주 잘 그려가지고 스페이스캔에서 전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은 픽셀로 그리는 것입니다.
저는 수묵으로 픽셀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같이 했습니다.
수묵으로 자유롭게 그립니다.
춤을 추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같이 초상화도 픽셀로 그렸는데 참여자들을 보고 아주 빠르게 그렸습니다.
초상화 모델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초코렛 선물도 나누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운복지관에 다녔고 사진도 찍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다시 와서 수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기쁜 것입니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아트버스 타고 현대미술 작품의 세계로
- 다운복지관 김민정 사회복지사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즈음, 캔 파운데이션의 「아트버스캔버스×예술공작소」 사업 지원으로 다운복지관 평생대학(자립컨텐츠학과) 이용인들은 처음으로 현대미술 작가와 함께 예술창작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주는 설렘과 기대감은 컸지만 이용인들은 정작 앞에 놓인 하얀 캔버스를 낯설어했습니다. 선을 긋는 것, 색을 입히는 것, 씨앗을 흙 속에 심어보는 것. 모든 활동의 처음과 마주했던 이용인들은 내재되었던 상상을 감히 표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붓을 칠하고, 씨앗을 흙으로 덮어보는 일에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처럼 김이박, 양진우, 최선, 김현우 작가님들과 박성빈 에듀케이터님, 매 회기마다 이용인들의 참여를 도와주셨던 보조강사 선생님들은 이용인들이 어떤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상과 각자의 세계를 작품에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예술의 영역에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예술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덕에 회기를 거듭할수록 우리 이용인들은 낯선 방식의 현대미술을 마주해도 자신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매번 격려와 칭찬으로 반응해 주셔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매 회기마다 이용인들이 완성한 작품을 보면서 저도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담당자인 제가 더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을 담은

작품들은 이용인들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는지 알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깊고 넓은 잠재력을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이번 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용인들에게 이번 예술프로그램은 흔한 취미여가활동이나 조금 특별한 활동, 가끔은 어렵고 지루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인들이 자신을 표현하며 만들어낸 작품들과 그로 인한 성취감은 분명 큰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아트버스를 타고 낯선 현대미술 작품의 세계로 여행했던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이, 나의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며 느꼈을 자존감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용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예술창작프로그램 덕분에 다운복지관 평생대학 자립컨텐츠학과 이용인들은 꿈을 꾸듯 자유롭게 현대미술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많이 보았으나 직접 그려본 경험은 적었던 이들에게 어떤 모양의 구속도 제한도 없이 현대미술이라는 프레임에 평범한 일상을 그리고, 특별한 상상을 꿈꿀 수 있게 지원해 주신 캔 파운데이션과 호반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 ARTBUS CANbus X 예술공작소

총괄
캔 파운데이션

총 기획
김성희 (캔 파운데이션 이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기획 및 진행
박성빈 에듀케이터

참여작가
김이박, 양진우, 최선, 김현우

진행보조
김예은, 김하림

후원
호반문화재단

지원/협조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다운복지관

발행
(사)캔 파운데이션

편집
(사)캔 파운데이션

내용/구성
박성빈 에듀케이터

사진
오동환 사진작가

영상
애퍼시 (apathy)

디자인
파이카

캔 파운데이션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2길 14-4
T. 02-766-7660
F. 02-744-0272
이메일 can-foundation@daum.net
홈피이지 www.can-foundation.org
인스타그램 @can_foundation